

“광주형 일자리 투자 등 지역경제 선순환 역할 뚜렷”

6년여 임기 마치고 퇴임하는 송중욱 광주은행장



광주은행 출신으로 처음 은행장으로 일한 송중욱(사진) 은행장이 6년여 임기를 마치고 오는 30일 퇴임한다.

송 은행장은 14대 광주은행장으로 취임하는 고병일 은행장에게 자리를 넘기며 오는 1월부터는 JB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지역경제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그는 “최초 자행 출신 은행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광주은행에서 보낸 30여 년이 무엇보다 바쁘고 값진 시간이었다며 광주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퇴임 소회를 밝혔다.

송 은행장은 취임 첫해부터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라는 경영 이념을 내걸었다.

그는 지역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밀착 경영의 값진 성과 중 하나로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시상식에서 지방은행 부문 5년 연속 1위를 한 점을 꼽았다.

“지역 중소기업 및 중저민에 대한 금융지원, 지역에 금을 받는 금융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돕는데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등을 보는 여러 가지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동맥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음을 인정받아 뿌듯합니다.”

금융감독원 선정 2021년 관계형 금융 우수은행 중 소형그룹 1위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선정 2021년, 2022년 2년 연속 지역 재투자 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일도 자랑거리였다.

최근에는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고객접점 부문 지방은행 1위와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지수’ 2년 연속 우수기업 선정 등 좋은 성적을 냈다.

“지역경제 선순환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인 광주은행이 꼭 솔

선수범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지역경제 안착을 위해 광주시, 현대자동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260억원을 출자하며 3대 주주로 팔을 걷어붙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른 시중은행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직접 일자리 1000개, 간접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전망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역 대표은행인 광주은행이 가장 먼저 앞장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지역 기업으로서 최초로 출자에 참여 선언을 함으로써 지역 우량기

명장 김성은 감독과 지역 첫 기업 양궁단을 꾸렸다.

송 은행장은 “광주를 세계 최고의 양궁 핵심지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겠다는 열망이 있었다”며 “광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우리 고장 출신의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다른 지역에 유출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성장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창단 취지를 강조했다.

광주은행의 한국화 공모전 ‘광주화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여섯 번째 치렀다. 전국 젊은 작가들의 활동을 지지해오며 ‘광주화루’는 전국 최대 규모 한국화 공모전으로 성장했다.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광주은행은 지역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임직원들이 직접 나서 지원 활동에 나섰다.

대표적인 장학사업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를 지속하고 있으며, (재)광주은행 장학회는 현재 4300여 명의 장학생에게 총 36억 원 상당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대한적십자사 10억 기부클럽에 가입하며 기업 봉사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송 은행장은 “광주은행에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준 지역민·고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1700여 직원에게는 ‘행운에서 은행장까지’를 꼽을 수 있는 희망의 일터를 선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광주은행은 내실 있는 질적 성장과 체질 개선을 통해 탄탄한 기초체력을 키워왔기에 앞으로 광주·전남 대표은행을 넘어 지방은행 최고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갖춘 선도은행으로써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도약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자행 출신 첫 은행장...JB금융지주 부회장 활동 브랜드파워 5년 연속 1위 ‘지역 밀착 경영’ 성과 ‘지역민·고객 신뢰 감사...100년 은행 도약할 것’

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은행이 송 은행장과 함께 시작한 굵직한 일 중 하나는 옛 광주은행 본점이 있던 충장로 5가에 들어선 ‘포용금융센터’이다. 지난 2019년 11월 문 연 포용금융센터는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에 힘을 모았다.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으로 돌리려던 소상공인들을 1금융권과의 거리가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다.

송 은행장은 지역 예·체능 발전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눈에 띈다.

광주은행은 창립 54주년을 맞은 지난 11월 여자 실업 양궁단을 창단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산, 최미선 선수를 필두로

효성, 해양생태계 보호 앞장선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잘피숲 보전 활동 추진

친환경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효성이 잘피숲 보전 활동을 추진하면서 해양생태계 보호에도 나섰다.

효성은 28일 지주사인 ㈜효성과 효성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3개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한국수산자원공단, 거제시와 함께 잘피숲 보전 활동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블루카본인 잘피는 해양생태계보호에 의해 지정된 해양보호생물로, 2009년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경남 거제시 다대·다포리 해역에 군락지인 잘피숲을 조성해 거제시가 관리 활동을 해오고 있다.

효성이 출연한 기금은 잘피 분포 현황 및 서식 환경 모니터링과 잘피 보식 필요 장소에 이식, 바다에 버려진 페어구 수거 등 해양환경개선 활동 등에 활

용될 예정이다.

앞서 효성첨단소재(주)와 효성화학(주)도 각각 전북 전주에 2급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전주물꼬리풀을 식재 및 보전하는 사업과 청주동물원과 함께 국가 보호종인 동물들의 행동풍부화 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이밖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환경문제를 향한 젊은 인재들의 관심을 높이고 젊은 인재들과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조 회장의 방침으로 대학생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밖에 친환경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의 일상 속 친환경 실천도 독려하고 있다.

또 올해 2월부터는 ‘페트병 수거’ 캠페인도 실시



조현준 회장

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다 쓴 페트병을 모으면, 효성티앤씨의 폴리에스터 리사이클 섬유 ‘리젠’으로 만든 가방 등으로 돌려주고 있다.

조현준 회장은 “친환경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생태계 보전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친환경 제조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토털 친환경 제조 업체로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회장은 린데그룹과 함께 울산 울진공장 부지에 세계 최대 수소 액화 플랜트를 건립 중이며, 완공 시기에 맞춰 울산에 제 1호 액체 수소 충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전남에는 중장기적으로 총 1조원을 투자해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웃을 생각하는 연말



대한건설협 광주시회 2500만원 성금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가 연말을 맞아 ‘희망 2023 나눔캠페인’에 동참해 이웃돕기 성금을 쾌척했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김영주(사진 왼쪽 네번째) 회장은 지난 27일과 28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방문해 각각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각 자치구별 소외계층 가정 등의 따뜻한 연말 보내기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주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건설업계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 따뜻한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협력사 일상관리 협약제 실시

기아 오토헤드 광주는 2023년 품질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협력사 일상관리 협약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협력사 일상관리 협약제는 사전 유지관리 점검 미흡으로 발생하는 부품 불량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기아와 협력사가 함께 실비관리, 용접, 금형, 작업표준, 출하 등 일상관리항목 점검 관리체계를 구축해 품질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품질향상 활동이다. 박래석 공장장과 협력사 대표들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일상관리 협약제 시행을 통한 품질 향상을 결의하고 있다.

<기아 제공>

어반유니온, 패션유통산업 빅데이터센터 구축

AI 활용 데이터 생태계 기반 마련

㈜어반유니온이 패션유통산업 빅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데이터 생태계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반유니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30개 분야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중 유통소비 분야에 선정돼 K패션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이다.

어반유니온은 K패션 빅데이터센터 운영을 통해 한국형 스타일 데이터 및 콘텐츠를 시작으로 ‘글로벌

별 통합 패션 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업계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2021년 유통·소비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돼 K패션 스타일 유통 빅데이터 센터를 조성 중으로, 1차년도 K패션 데이터의 표준화와 패션 트렌드 데이터 구축을 위해 K패션 유통 용어 분류체계 데이터와 K패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K패션 트렌드 데이터, K패션 한류 트렌드 데이터를 수집·제공했다.

올해 사업에서는 전년에 수집했던 데이터에 추가로 K패션 지역 정보 데이터와 K패션 수출정보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또 K패션 트렌드 빅데이터와 함께 트렌드 레포트도 제공한다. 의류 품목 및 세부 아이템별 판매점 유출 및 연관 키워드, 트렌드 랭킹 등 자료들을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제시해 패션 소비패턴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 아이템을 준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데이터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반유니온은 AI 기술을 패션산업과 융합, 새로

운 패션시장 개척 및 AI 연구와 패션산업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꼽힌다.

우선 2019년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 ‘기술사업화 유망사 시상식’에서 민간 분야 유망사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상을 수상, 2022년에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과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밖에 롯데쇼핑 8억원 투자유치 등 각종 투자유치와 다양한 상생 프로젝트도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패션산업 표준화를 위한 패션 자연어 사전 구축 사업을 추진, 7년간 패션 테크 및 패션 O4O 플랫폼 비즈니스, AI 패션 MD 서비스 개발사업이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과기부 NIA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헬스케어, VISION 분야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디지털 병리 기반의 ‘암 전문 AI 분석 솔루션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패션을 넘어 다양한 융복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대한전문건설협 광주시회 1200만원 후원금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28일 사회복지시설인 월드비전과 ‘애일의 집’, ‘영신원’ 등 6개 복지시설에 각각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진) 박병철 회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건설협 광주시회는 매년 취약계층과 불우이웃 위문 및 후원과 김장나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행복한 목수 리모델링’ 등 다양한 공헌을 펼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80.45(-52.34)
↓ 코스닥	692.37(-11.82)
↑ 금리(국고채 3년)	3.668(+0.006)
↓ 환율(USD)	1267.00(-4.40)